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8. 11 (목)	담당부서	전력진흥과
담당과장	김성열 과장 (044-203-5260)	담당자	김태현 사무관 (044-203-5264)

## 산업부, 「장기 이상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」 발표

- 7~9월 3개월간 총 4,200억원 규모로 누진제 요금부담 경감 -

- (개요) 금일 17시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, 7~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음
- (배경)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
  - 특히,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~6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
  -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과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
- (방안)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을 50킬로와트아워(kWh)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 경감
  - 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

<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 >

구간	요금	전력량요금 (원/kWh)	
		현행	조정
1	60.7	100kWh이하	150 kWh이하
2	125.9	101~200kWh	151 ~ 250 kWh
3	187.9	201~300kWh	251 ~ 350 kWh
4	280.6	301~400kWh	351 ~ 450 kWh
5	417.7	401~500kWh	451 ~ 550 kWh
6	709.5	500kWh 초과	550 kWh초과

- (예상효과) 대다수의 주택용 사용가구에 대해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
  -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~9월 3개월간 총 4,200억원\*을 지원
    - \*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.4%, 연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5.2%
  -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(703만 가구, 1,300억원)과 비교해 수혜가구(2,200만 가구)와 지원금액(4,200억원) 모두 3배 이상
- (수요관리) 금번 조치 실행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킬로와트(kW) 증가가 예상되나,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태현 서기관(044-203-52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